

경기문화재단 연감
종합평가

Activities in 2007

01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문화재단의 2007년은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경영비전을 수립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문화행정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변신을 모색한 한 해였다.



02

10주년을 맞이해 기념사업으로 <경기도, 도자예술의 혼展>을 비롯해 4회에 걸쳐 전시회를 가졌으며 학술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7월 5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문화, 어울림과 반올림」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문화비전 5대 분야 30대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 ▲문화예술 창조력의 신장 ▲문화창조산업 육성 ▲문화향유기회와 문화복지 확대 ▲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삶의 가치를 문화예술로 실현하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무박 2일로 굿음악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창조력에 주목하여 굿음악제를 마련해, 대중음악과의 창조적인 만남을 주선했다.



03

‘문화예술 레지던시 공간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과 ‘문화예술인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 문화예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국제공연워크숍을 열어 국내의 연극, 무용, 미디어 관련 공연예술가들의 교류의 장을 열었고, 무용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의 시야를 넓히고 직접 접촉과 자극을 통해 춤 세계의 확장을 유도했다. 해외문화공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3박 4일 동안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등 일본의 문화공간 답사를 통해 문화예술정책과 공간운영 노하우 등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04

2007년에 4회째를 맞이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인물인 천상병(1930~1993)시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한 <천상병예술제>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했다. <천상병예술제>는 2003년 시인 추모 10주기 음악회로부터 출발하여 꾸준히 성장하며 전국단위의 종합예술제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07년에는 창작 뮤지컬 <귀천>을 초연하고, 시가 흐르는 천상음악회, 천상으로 보내는 편지 특별전 등을 마련하여 많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